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2호 [투게 제24535호] 주제103(2014)년 5월 2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각하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의 민족적명절인 독립절에 즈음하여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길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훌륭한 계기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친선적인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복리에 부합되게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 아랍 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4년 4월 30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중국인사들이 축전과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조선전쟁로병리사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축전과 선물을, 중국 베이징수용림건축장식공정설계유한공사 총경리가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축전과 선물을 로씨야조선전쟁로병리사회 위원장 에스.엘. 크라마렌코와 중국 베이징수용림건축장식공정설계유한공사 총경리 왕수가 4월 9일과 25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나라 관계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은 인민의 락원

대대로 수령복, 령도자복을 누리며 참된 삶을 꽃피우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은 국제사회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 나라에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없고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는 사회가 바로 조선사회이다. 사람들이 실업을 모르며 녀성들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나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다. 네팔신문 《노야 꼬트빠르와》는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이 오면 조선의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생존권보장을 위한 파업이나 시위가 아니라 다채로운 경축행사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준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주공과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서기장은 세금이 없고 무료교육, 무상치료가 실시되는 조선은 인민의 락원이라고 하면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24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평양 5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24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환희에 넘쳐 필승의 신심과 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온 나라 인민은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대회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 일군대회정신을 받들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공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박봉주동지, 양형섭동지, 오수용동지와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길 농군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중앙일원들, 평양시내 로력혁신자들과 근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

5.1절경축로동자연회 성대히 진행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력혁신자들 초대

【평양 5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5.1절경축로동자연회가 새로 건설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서 1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연회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전초기지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나가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계급에게 베푸시는 뜨거운 사랑의 축하연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0월 공장을 찾으신서 일군들과 방직공들이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창조만이 무성하던 대동강기슭에 몸소 공장을 일떠세워주시고 전주의 제머미우에서도 제일먼저 복구하도록 하시였으며 수십차례나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시면서 공장을 굴지의 천생산지로 꾸려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아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깊이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해에도 공장을 찾으신서 로력혁신자들을 친히 만나 고부해주시면서 로동자합숙을 잘 건설해줄데 대한 은정깊은 말씀을 주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혜로운 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뜨겁게 이어지고있다. 선군명도의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해 10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부하신대로 로동자합숙을 자신께서 책임지고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부지도 몸소 정해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전해주시였으며 건설정형을 매주마다 보고받으시면서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걸린 자재들을 해결해주시어 최단기간내에 완공될수 있게 하여주시었다. 지난 4월 29일 완공보고를 받으신 강길로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침실과 세면장, 상점과 목욕탕, 도서실과 식당을 비롯하여 합숙의 내외부를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고 우리 당이 로동계급과 한 약속을 지키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동자합숙이 정말 멋있다고, 먼지만 날리던 곳이 지게벽되고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대민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로동자들이 편리하게 침실에 닿은 침대를 놓아주며 벽장을 비롯한 가구들을 잘 만들어 줄데 대하여서와 상품보장장과 도서실의 학습조건 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에서 5.1절경축로동자연회를 성대하게 차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함쳐 축하해주라고, 이날에 생일을 쇠는 로동자들에게도 생일상을 차려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함으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덕을 대를 이어 꽃피워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태어난 사랑의 궁전이고 행복의 집이며 로동

자들의 정다운 보금자리이다. 세상에선 근로하는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어 극소수 부유한자들이 향락을 누리는 궁전과 호렘은 많지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은 우리 나라에밖에 없으며 로동자연회라는 말도 태양조선, 경애하는 원수님의 나라인 우리 나라에밖에 없다. 연설자는 연회참가자들과 전체 공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그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오직 한분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명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제일결사대, 군위대가 될데 대하여 말하였다. 지금 우리 당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초선에 서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이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갈것을 바라고있다고 하면서 동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이 늘 자기들의 몸 에와닿았고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산다는 긍지와 행복에 넘쳐 생산에서 기적과 혁신만을 창조함으로 로씨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더 많은 찬

을 생산하는것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철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서 로동자들에게 공진 같은 따뜻한 생활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고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심장에 새기고 더 많은 찬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불라는 총정의 결의를 가다듬었다.



